

2025학년도 1학기 글말교실 소감문



[자동차 연구 논문 분석 및 해석]

이름	조한빈
전공	자동차IT융합학과
학번	20223414
참여 프로그램	☐ 1-on-1코칭 (박태미)

저는 자동차IT융합학과에 재학 중이며,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전공 특성상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 자료를 파악하려면 대부분 영어 논문을 다루어야 합니다. 사실 저는 초등학교부터 중학교까지 외국에서 생활하며 영어에 대한 자신감은 꽤 있었고, 일상적인 영어 소통이나 기본적인 독해에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공 논문이라는 영역은 전혀 다른 세계였습니다. 기술적 개념, 복잡한 문장 구조, 그리고 학문적인 표현 방식 앞에서, 저는 다시금 ‘영어의 벽’ 앞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마침 알게 된 것이 바로 ‘1-on-1코칭’이었습니다. 처음 상담실 문을 두드리던 날, 저는 조금 긴장하면서도 내심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박태미 교수님을 처음 만나 뵈었습니다. 교수님께서 제 글을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글의 문법이나 표현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장 안에 담긴 제 의도와 생각을 읽으려 하였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며 “이 부분, 너는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썼니?” 하고 따뜻하게 물어보셨습니다. 그 질문은 마치 ‘네 생각은 소중한’라는 메시지처럼 느껴졌고, 저는 그 순간부터 제 글에 대해 처음으로 책임감과 애정을 갖게 되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센서 데이터를 주제로 한 영어 논문을 요약하는 과제가 있었고, 저는 그 논문을 해석하고 제 나름대로 요약해 교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너무 어렵고 익숙하지 않은 문장이 많아 억지로 해석한 부분도 많았고, 자신감은 바닥이었습니다. 그날 밤, 교수님께서 제 글을 읽으시고, 장문의 피드백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1-on-1코칭 시간도 아니었고, 늦은 밤이었기에 더욱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메일에는 문장을 어떻게 다듬으면 더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을지, 논리적 흐름은 어떤 구조로 짜야 읽는 이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하지만 결코 부담스럽지 않게 담아주셨습니다. 교수님의 말투에는 따뜻함이 있었고, 비판보다는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 글에는 가능성이 보여요. 조금만 더 다듬으면 분명 멋진 글이 될 거예요.”라는 문장을 읽는 순간, 마음이 쫘해지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때부터 글쓰기가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영어 글쓰기를 ‘틀리지 않게 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나의 생각을 솔직하게, 또 정확하게 전하는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문장의 구조나 단어 선택 하나하나에도 제 마음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을, 교수님과 수업들을 통해 처음 배웠습니다.

또한 교수님께서 ‘글을 잘 쓰는 방법’ 뿐 아니라, ‘학문적으로 성숙해지는 태도’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번은 제가 너무 어렵게 표현하려 하다가 문장이 꼬였던 적이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글이 어렵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독자가 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마음을 담는 게 더 중요해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멋있게 보이기 위한 글’을 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전달력을 위한 글’을 쓰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이 1-on-1코칭은 단순한 글쓰기 수업이 아니었습니다. 제게는 마음을 들여다보고, 생각을 정돈하며, 나의 언어로 세계를 표현하는 법을 배운 특별한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중심에는 늘 저를 응원해 주신 박태미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교수님은 단 한 번도 저를 ‘가르치려는’ 태도로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같이 고민하는 사람’으로 함께 해주셨고, 제가 넘어지는 순간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다시 새로운 글들을 마주해야 하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통해 ‘글을 쓰는 나’에 대해, 그리고 ‘글을 통해 성장하는 나’에 대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수님께 받은 이 따뜻한 배움과 용기를 잊지 않고, 학문적 길을 걸어가며 더 단단해지고 성숙한 글을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태미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누군가 글 앞에서 막막함을 느낀다면, 저는 꼭 ‘1-on-1코칭’을 추천할 것입니다. 이곳에는 글을 넘어서 마음까지 보듬어주는 진짜 배움이 있으니까요.